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

2015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 원 도 의 회
경 제 건 설 위 원 회

목 차

I . 연수 개요	3
II . 연수 일정	5
III . 연수국가(지역) 별 연수내용	7
① 덴마크 빌룬드(Billund) 레고랜드 운영 상황 /	7
② 오스트리아의 ICT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	14
③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 및 문화올림픽 시찰 /	21
④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 상공회의소 방문 /	24
⑤ 헝가리 소프론(Sopron)시 의료관광 정책 /	27
IV . 주요 방문성과 및 시사점	31
V . 연수국가별 관련정보 및 참고자료	35
① 덴마크 /	35
② 오스트리아 /	39
③ 헝가리 /	42
④ 레고랜드 브리핑 자료 /	45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 도의원으로서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한 『2015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며,
- ❖ 향후 경제정책, 레고랜드코리아,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현안 추진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추진코자 함

I 연수 개요

- 연 수 명 : 201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 연수기간 : 2015. 2. 24(화) ~ 3. 4(수) ※ 7박 9일
- 연 수 자 : 10명 (경건위 위원 8, 전문위원실 2) ※ 명단 별첨
- 연수국가 :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 주요 연수내용
 - ① 레고랜드코리아 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운영 사례
 - 레고랜드와 연계한 각종 관광상품개발 등 운영 상황
 - ② 오스트리아의 ICT를 활용한 노동시장 공공고용서비스 전략
 - 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 등
 -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③ 동계스포츠 관련 시설 및 문화올림픽 사례
 - 동계스포츠 및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성공적 사례 등
 - ④ 헝가리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사례
 - 세계적 표본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살리기 정책 등
 - ⑤ 혁신도시(소프론)의 의료관광 정책 추진 사례
 - 임플란트 의료관광의 성공적 추진 요인 분석 등

공무국외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한 글	영 문		
1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	AHN SANG HUN	남	
2	"	위 원	김규태	KIM KYU TAE	남	
3	"	"	박길선	PARK GIL SUN	남	
4	"	"	박현창	PARK HYEON CHANG	남	
5	"	"	유정선	YOU JUNG SUN	여	
6	"	"	정재웅	JEONG JAE WOONG	남	
7	"	"	최성재	CHOI SEONG JAE	남	
8	"	"	홍성욱	HONG SUNG WOOK	남	
9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성재	LEE SUENG JAE	남	
10	"	주 무 관	김영희	KIM YOUNG HEE	남	

II

연수 일정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2. 24 (화)	10:00 12:45 16:45 19:35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출국소속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도착 모스크바 출발 (러시아 모스크바 →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 도착 (호텔투숙 및 휴식) 	SU251편 SU251편
2. 25 (수)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조식 후 빌룬드로 이동 레고랜드 방문 ※ 공식방문 1 코펜하겐으로 귀환 호텔로 이동 후 투숙 	전용차량
2. 26 (목)	19:45 2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펜하겐의 문화 및 기반시설 등 시찰 코펜하겐 출발 (덴마크 코펜하겐 → 독일 뮌헨) 독일 뮌헨 도착 및 호텔 투숙 	전용차량 SK659편
2. 27 (금)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시찰 ※ 공식방문 2 잘츠부르크 시청 방문 ※ 공식방문 3 호텔로 이동 및 휴식 	전용차량
2. 28 (토)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조식 후 비엔나로 이동 비엔나 문화탐방 호텔이동 및 투숙 	전용차량
3. 1 (일)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 후 짤츠캄머굿으로 이동 및 탐방 헝가리 소프론으로 이동 (비엔나 → 소프론) 소프론 의료관광(임플란트) 병원 시찰 ※ 공식방문 4 부다페스트로 이동 (소프론 →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호텔 이동 후 투숙 	전용차량
3. 2 (월)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 방문 ※ 공식방문 5 부다페스트 문화탐방 호텔 투숙 및 휴식 	전용차량
3. 3 (화)	12:50 17:20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부다페스트 출발 (부다페스트 →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출발 (모스크바 → 인천) 	SU2031 SU250
3. 4 (수)	11: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 도착 춘천 도착 및 해산 	

Ⅲ 연수국가(지역)별 연수내용

- ① 덴마크 빌룬드(Billund)의 레고랜드 운영 상황
- ② 오스트리아의 ICT를 활용한 노동시장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 ③ 오스트리아의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 (Salzburg)
- ④ 부다페스트(Budapest)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지원·육성사례)
- ⑤ 헝가리 혁신도시(Sopron)의 의료관광(임플란트) 추진사례

① 덴마크 빌룬드(Billund)의 레고랜드 운영 상황

- 레고랜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만든 놀이공원으로서, 현재 빌룬드에는 총 6천만개의 레고 브릭스(조각)로 각종 시설들을 조성해 놓았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oy 회사이며,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레고랜드는 1968. 7월에 개장하였고, 최초 개장시에는 미니랜드(Miniland) 1개구역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8개의 구역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연간 최대 17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방문객 수는 약 5천만명임.

- 미니랜드(1968년) ▪ 레고타운(1973년) ▪ 튜플로 랜드(2001년)
- 해적랜드(1990년) ▪ 기사왕국(1997년) ▪ 어드벤처 랜드(2002년)
- 바이킹 리버(2006년) ▪ 폴라 랜드(2012) 등 8개 구역

- 레고랜드 빌룬드 리조트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크게 레고랜드 홀리데이 빌리지와 레고랜드 호텔 2개로 구분되어 있음.
레고랜드 호텔은 223개의 스위트룸과 950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고랜드 홀리데이 빌리지는 2,200개의 침상이 있음.
각 방(룸)들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두 레고로 구성(장식)되어 있는 공간임.
- 덴마크의 매우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개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4월~10월까지 (연 200일)만 개장하고 있음.
- 레고랜드는 레고를 직접 가지고 노는 것, 100% 고객만족을 위한 공유 공간, 그리고 체험공간(탈거리, 즐길거리 등) 총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연간 방문객은 170만 이상이며, 방문객중 내국인(덴마크인)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방문객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총 방문객중 약 95%의 방문객은 0~14세 사이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며, 방문객중 3/4(약75%) 정도가 다시 방문하고 있음. 또한 방문객중 92%가 방문후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97%가 또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덴마크 주변에 있는 국가들(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잉글랜드)에서도 작은 규모의 레고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레고랜드는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 빌룬드 레고랜드 주변에는 동물원, 워터파크, 놀이시설(Lalandia)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레고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주변의 많은 관광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레고랜드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
 - 레고랜드만을 둘러보는 데에는 1~2일 정도가 소요되며, 레고랜드 리조트를 포함하여 주변시설 전체를 관람(체험)하는 데에는 약 3~5일정도 머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음.
 - 또한, 레고랜드는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주변에 구축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나 Shop 등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편리한 이동수단, 주차장 등 인프라 역시 잘 갖추어져 있음.
- ※ 주변 워터파크인 Lalandia에만 1만여개의 침상이 구비되어 있음.

주요 질의·응답 내용

질문요지	답변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랜드의 연간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소득의 25%)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200억원임 ※ 주변의 부대수입까지 감안하면 경제적효과가 훨씬 클 것임 	정재웅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랜드의 순이익이 200억원인데 주변까지 포함한 경제적효과를 측정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의 커뮤니티가 협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음 (빌룬드 市에서 파악가능) 	최성재의원

질문요지	답변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료는 얼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6만원, 어린이 5만 5천원으로 성인과 별 차이 없음 ※ 디즈니랜드의 절반 수준 	박현창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만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자유이용권이 6만원이며, 2일권은 8만원 정도임 	안상훈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랜드로 인하여 직업은 얼마나 창출되는지? ▪ 직업의 형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200개의 직업이 창출되고 있음 ▪ 4월부터 10월까지만 개장하므로 파트타임 형태가 비교적 많음 ※ 정규직은 250명 정도임 	정재웅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랜드 종사원들의 평균 급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약 3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세금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급여의 50%수준 	정재웅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중 레고랜드 호텔 이용객 비율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즌때는 모든 방이 매진되며, 비시즌에도 주변의 협력시설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레고랜드 호텔은 1천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레고랜드 방문객이 매일 2만 5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호텔은 거의 대부분 매진되는 것임 	정재웅의 원

방 문 사 진



☞ 레고랜드 시찰 (정문 입구)



☞ 레고랜드 본사 브리핑



☞ 레고랜드 작품(모형) 전시장 시찰



☞ 레고랜드 작품(모형) 전시장



☞ 레고랜드 작품(모형) 전시장



☞ 레고랜드 야외 작품(모형) 전시장

② 오스트리아의 ICT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잘츠부르크 시청)

오스트리아의 『ICT 신산업을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공공고용서비스” 분야 선진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청을 방문함

- 노동시장에서 고용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공고용서비스(PES : Public Employment Service)』는 노동시장 내 공급자(구직자)와 수요자(기업)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구인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용정보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를 1:1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ICT 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꼽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1년 ‘무료 일자리 알선’을 시작으로 공공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난이 발생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능이 일자리 알선에서 진로상담, 직업훈련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확장되었음. 특히 최근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고용정보망(Work-Net, Hard-Net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되어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산업간', '인력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음.

-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에서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❶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고용 및 ICT 지표 비교

-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고용 및 ICT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5% 이하의 수준에 머문 상태로 오스트리아 보다 평균 8.2%p 낮은 고용률을 유지하였고, 이에 반해 실업률은 오스트리아가 한국 보다 평균 0.9%p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실업률을 기준으로 양 국가의 노동시장 환경을 비교한다면, 한국의 실업문제가 오스트리아보다 외형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률 계산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스트리아의 고용 시장이 한국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 GDP대비 노동시장정책(ALMP : 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예산 규모는, 한국 0.33%, 오스트리아 0.75%로 오스트리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GDP 대비 PES의 예산규모는 오스트리아 0.18%로서, 한국(0.02%)과 비교하여 무려 9배나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예산투입 비중만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는 한국보다 공공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판단할 수 있음.

② ICT 지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다운로드 속도)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ICT 지표를 보면, 한국은 2005년도부터 가구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인구 100명당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보면, 한국은 오스트리아보다 유선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11.5%p 앞서고 있으며, 특히 무선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한국은 100%의 보급률을 넘은 103%를, 오스트리아는 이보다 낮은 56.3%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빠르며, 중간값 기준의 다운로드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인프라 기준의 ICT 지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여짐.

③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 비교

-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중앙부처(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82개의 고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한편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공고용정보망은 워크넷(Work-net: 직업알선), 하드넷(HRD-net: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최근 2010년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스마트 폰으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2011년 7월 민간취업포털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통합화를 추진 중에 있음.

○ 대표적 공공고용서비스인 '워크넷'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에 위치한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및 인재 맞춤형 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과 같은 일자리 정책 정보를 제공 중에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규 구직자수는 291만명, 구인을 희망한 업체는 194만개로 집계되어, 구직자 대비 빈일자리 비중이 최소 67%를 기록함으로써 많은 구직·구인자가 공공고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워크넷의 동기간 평균 취업률은 38.2%(취업성공 111만건)에 그치고 있어, 현재까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반면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AMS: Arbeits Market Service)는 1994년 정부산하기관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단형태로 실시되었음. AMS는 수요자(구직·구인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정 간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역고용 지역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조직 1개, 주 정부차원조직 9개, 지역 차원에서 101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AMS는 구직·구인자 개인 e-AMS계정을 개설하고, eJob-Room이라는 공공고용정보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업 ICT를 활용한 공공고용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직업훈련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여, 수요자에 적합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일자리 알선과 실업급여제도가 연계된 취업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 취업성과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워크넷' 취업률은 38.2%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AMS'는 취업인센티브 대상자 기준 90%이상 (3개월 이내)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취업성과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ICT 기반의 공공고용서비스(고용플랫폼)는 얼마나 많은 구직·구인자를 보유하고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외부성이 실현되기 때문에, 매칭가능률 60% 이상을 기록한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오스트리아보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이하 PES)는 공통적으로 구직·구인자 간에 인력수급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더욱이 ICT 기술(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한 고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노사정 공단의 주체로 구성 된 PES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알선' 이라는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능을 넘어서, 타 고용정책과

‘일자리알선’ 서비스를 융합한 고용 플랫폼을 실현하고 있음. 즉, 오스트리아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의 다양한 노동정책을 결합함으로써 고용성과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반면, 한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PES가 운영되고 있었고 확보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상황임. 또한 한국(워크넷)의 매칭가능률이 60%를 상회한다는 것은 ‘고용 플랫폼으로서 의 가치’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PES를 운영하는 점, 분산된 고용정보망(Work-net, HRD-net)을 운영하는 점, PES와 다양한 노동 정책의 결합현상 미흡 등은 PES의 고용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여짐.
- 따라서 ICT 기술을 적용한 통합된 PES 전산망을 구축하고, PES가 보유한 고용전산망 및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PES를 중심으로 여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융합된 신개념의 공공고용서비스가 요구됨.

방 문 사 진



☞ 잘츠부르크 시청 전경



☞ 잘츠부르크 시청 회의장면

③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 및 문화올림픽 시설 (잘츠부르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2차례나 비딩에 참여했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기반시설 및 경기장에 대하여 시찰 실시

- 2010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였던 잘츠부르크는 예상 외로 시가지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잘츠부르크 도심에 동계올림픽위원회 사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인력만이 근무하고 있어 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도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기반시설과 경기장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곧바로 잘츠부르크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유치 당시 시민들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2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잘츠부르크시에 있는 수많은 문화·관광자원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과 연관되어져 있으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영화의 감동을 다시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강원도(평창)로서는 이러한 문화·관광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잘츠부르크시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이제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문화올림픽을 통하여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였음.
- 따라서,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이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민운동> 을 통하여 강원도의 품격을 높이고 수준높은 도민의식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문화도민운동이 올림픽에 국한되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무형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도민들이 『친절·나눔·배려』 등을 생활화하고, 이런 인식변화를 통하여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가짐으로서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결론적으로, 올림픽은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또한 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통하여 강원도민의 의식을 살찌우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잘츠부르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올림픽을 통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매료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생활로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운동에 탄력을 가해 추진해야 할 것임.

- 동계스포츠 시설로 현재 잘츠부르크 시내에는 아이스링크 1개소만이 있을 뿐, 스키장 등 다른 시설은 시내에서 약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임.
- 아이스링크는 동절기에는 프로팀(Redbulls)에 임대되어서 활용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일반적인 공연에 임대하는 상황으로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계스포츠 관련 시설로 이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잘츠부르크 빙상경기장 외부



☞ 잘츠부르크 빙상경기장 내부 (연습장면)

④ 헝가리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 방문

세계적 표본이 되고 있는 헝가리의 『중소기업살리기』 등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강원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

① 헝가리 수출입은행은 유럽투자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헝가리 수출입은행에 약 200만 유로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오고 있음. 유럽투자은행 (EIB) 대출의 최소한 70%는 헝가리 수출입은행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30%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유럽투자은행의 대출금은 지역발전과 경쟁력강화 그리고 헝가리 수출입 은행과 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정책 추진에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유럽투자은행 기금은 장기대출 기간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임.
- 2013년 10월에 유럽투자은행은 헝가리 수출입은행에 100만 유로의 대출을 하였으며, 유럽투자은행과 헝가리 수출입은행은 성공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의 최초 대출의 성과로 헝가리내 170개 회사에서 27,000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②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과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력 강화

-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Operation』 Program은 오스트리아 경제국에서 관장하는데, 경제국은 2015년도에 경제 10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사용을 목적으로 70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내도록 하였음.
- 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비즈니스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증대는 물론 헝가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③ 중소기업 특허 등록비용 절감 정책 추진

- 헝가리 경제진흥 당국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 등록비용을 절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향후 몇 년 후에는 혁신과 창조, 경제성장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자국 기업의 혁신을 앞당기고 비용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특허비용 절감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여짐.

④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세체니 복지카드, Jeremie 등)

- 헝가리 통합 기업 복지카드인 『세체니 카드』는 헝가리 국내 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체에게도 복지카드를 이용한 사내직원 복지혜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헝가리에서는 세체니 복지카드를 통한 부가급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체니 복지카드는 은행 직불카드 형태로 기업 또는 고용주가 제공한 부가 급부(Fringe Benefit)를 통해 헝가리 내 숙박시설, 레스토랑,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카드임.
- 세체니 복지카드는 고용인, 피고용인 상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카드로서, 고용인은 연봉 협상시 세체니 복지카드와 같은 부가급부를 이용하여 수월하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은 이를 통해 세제혜택(법인소득세 면제)을 받음.
- 피고용인은 세체니 복지카드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플랜” 을 세울 수 있으며, 헝가리 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 밖에도 유럽투자은행 및 헝가리 중앙은행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제레미(JEREMIE), 세금완화 정책 등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 전경

⑤ 헝가리 소프론(Sopron)시 의료관광 정책 시찰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중 하나인 『의료관광』의 모범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헝가리 소프론을 방문하여, 임플란트 의료관광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최근 세계인들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선진국 국민들을 포함한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해외 의료 시장을 찾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의료수준은 물가 대비 높은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헝가리 소프론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이 맞닿은 알프스산맥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과거 정적인 관광지였던 소프론이 글로벌 치과기술을 갖춘 동적인 의료특구로 탈바꿈 하고 있음.
- 소프론이 매년 외국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치과진료비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헝가리 GDP의 10% 수준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 6만여명의 소도시가 의료기술 특화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소프론 의료관광으로 성공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짐.
- ❶ 단순한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인공치아 이식을 위한 임플란트 서비스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함.
-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 웬만한 치과 치료는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시술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감.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임플란트 4개를 하려면 약 6,000유로나 드는데, 소프론에서는 물가나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절반도 들지 않는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음.

② 유리한 지리적 입지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유리한 조건임

- 소프론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로 30~40분 밖에 걸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통 입지가 매우 좋은 편임.
- 임플란트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멀리가야 한다면 의료여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소프론은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면 왕복 항공가격이 200유로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으며, 7박 8일의 호텔 숙박 및 관광비용이 350유로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10개의 임플란트 비용 2,600유로를 합쳐도 3,150유로 정도면 모든게 해결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③ 치과 치료에 연관된 고객서비스와 부대서비스가 매우 좋음.

- 소프론의 치과 의사 대부분이 유럽 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료실력도 좋고, 독일어나 영어 등 각종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어 환자의 불안감도 적음.
- 또한, 병원마다 부대시설로 피부관리실, 마사지 휴게실, 호텔과 식당 까지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④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다른 관광도 할 수 있음

- 소프론은 중세의 고성 도시로 유명하고 인근 자연환경이 탁월해 볼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환자이자 관광객들은 치료가 없는 날 부다페스트 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까지 가서 다양한 관광과 온천욕, 쇼핑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음.

《 강원도에 주는 시사점 》

- 강원도에서도 의료기기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제진흥국 산하에 의료관광팀이 구성되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의료관광 기반도 다소 미약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강원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병원, 지원기관, 행정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장하는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및 의료관광을 위한 『전문통역사 양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팸투어』 등을 통해 의료관광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청정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의료산업을 강원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추진체계의 조기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여겨짐.

방 문 사 진



☞ **의료관광(임플란트) 병원 방문**



☞ **치과병원 전경**



☞ **소프론 시가지 전경**

IV 주요 방문성과 및 시사점

① 덴마크 빌룬드(Billund) 레고랜드 운영

- 덴마크 빌룬드 레고랜드는 141천㎡(약 43천평)의 면적으로서, 춘천에 조성중에 있는 레고랜드코리아 1,291천㎡(약 390천평)의 11%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70여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 2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레고랜드 코리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가능성의 확인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하는 소중한 계기였음.
- 따라서, 레고랜드코리아와 관련한 발전방안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다면 춘천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레고랜드로 인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① 주변지역(시군)과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
- ② 지역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일자리(정규직) 확보장치 마련 요구
- ③ 머무는 관광객 확보를 위해 주변지역에 충분한 숙박시설 확보 필요
- ④ 레고랜드 주변에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설) 확대 등

② 오스트리아 ICT 활용 공공고용서비스 (Salzburg 시청)

- 오스트리아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IT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원화된 『공공고용정보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원스톱(One-Step)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정보망을 통한 구직희망자의 90%이상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등에 산재해서 운영되고 있는 고용시스템(워크넷, 하드넷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책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발달된 IT기술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③ 동계스포츠 시설 및 문화올림픽 (Salzburg)

- 2010년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도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츠부르크 도심에는 동계스포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이스링크 1개소가 전부임

- 그러나, 잘츠부르크의 대부분 문화관광적 요소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콘텐츠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꾸준하게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깊은 인상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올림픽 개최가 불과 3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료될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핵심 관광상품의 개발』 과 강릉단오제, 정선아리랑 등 『핵심 문화콘텐츠 육성』 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도민 운동』 도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④ 헝가리 부다페스트 상공회의소 방문 ※ 중소기업 지원 정책

- 헝가리는 『중소기업살리기』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유럽권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① 유럽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대폭 강화
※ 200억 유로 지원 → 170개 회사에서 27,000개 일자리 창출
- ②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기금 조성 지원 (50억유로)
- ③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 등록비용 절감』 정책 추진
- ④ 『세체니 복지카드』로 고용인(중소기업) 및 피고용인 쌍방 모두 혜택
※ 기업 → 법인소득세 면제, 피고용인 → 다양한 복지혜택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헝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같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⑤ 헝가리 소프론市 의료관광(임플란트) 시찰

- 헝가리의 소도시인 소프론시에는 지역적인 환경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① 유럽에서 비교적 발전되지 않은 임플란트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
- ② 유리한 지리적 입지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활용
- ③ 치과 치료에 연관된 고객서비스(언어 등)와 부대서비스가 매우 좋음
- ④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다른 곳에서 쇼핑과 관광도 가능

-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의료기기산업, 바이오 산업을 종합병원 등과 연계하여 임플란트, 관절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의료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 의료관광 방문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통역사 양성』, 의료관광 마케팅을 위한 『팸투어』 등을 실시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요구되며,
-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해외연수를 통하여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강원도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지향점을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 ▶▶▶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도의원들의 전문확대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중한 기획였음.

1

덴마크



덴마크 개관

- ❖ 국 명 : 덴마크 왕국(The Kingdom of Denmark)
- ❖ 수 도 : Copenhagen(인구 약 53만명, 수도권 포함 약 175만명)
- ❖ 면 적 : 43,098km²(자치령 그린란드 및 패로제도 제외; 한반도의 1/5)
- ❖ 인 구 : 약 565만명('14)
- ❖ 위치 및 지형
 - 북위 54 ° ~ 57 °, 동경 8 ° ~ 15 °에 위치하는 유틀란드 반도 및 407개의 섬으로 구성
 - 국토의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빙하의 운반, 퇴적에 의해 형성되어 평탄하고(최고봉이 해발 173m) 호수가 많으며(1,008개) 하천은 규모도 작고(최장 158km) 많지 않은 편
 - 주요 영토는 독일과 연결된 유틀란드(Jutland)반도와 코펜하겐이 있는 질랜드(Zealand)섬,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텐세가 있는 뢰섬(Fyn)섬
- ❖ 기 후
 -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편
 - 2월에는 평균 -0.4℃, 7월에는 16.6℃ 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mm (0.1mm 이상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71일)

- 2013년 10월말과 12월초 2차례에 걸쳐 폭풍이 덴마크 전역을 강타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통행량과 물류에 차질을 빚음.
- ❖ 민 족 : 아리안계의 덴족, 고트족
 - ※ 전체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덴족
- ❖ 언 어 : 덴마크어
- ❖ 교 육 : 9년간 의무교육(7~16세)
- ❖ 종 교 : 덴마크 루터복음교(약 87%), 이슬람교(이민세대의 영향으로 2위),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 등
- ❖ 정 체 및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H. M. Queen Margrethe II(1972.1.14 즉위)
 - ※ 헌법상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함으로써 국왕은 상징적 존재
 - 총 리 : H.E. Helle Thorning-Schmidt(사회민주당, 2011.10 취임)
- ❖ 국 회 : 단원제(총 179석, 그린란드와 페로제도에 각 2석 할당)
 - 여당 : 좌파연합(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 Red Green 당)
 - 야당 : 우파연합(자유당, 보수당, 덴마크 국민당, 자유연합당)
- ❖ 화폐단위 : Danish Krone(2015년 1월 기준 : 1USD=6.57DKK)
- ❖ 주요경제지표(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중앙은행 등, 2014. 6월기준)
 - 명목 GDP : 3,472억불('2014 IMF 기준)
 - 1인당 GDP(경상 기준) : 61,885불('2014 IMF 기준)
 - 상품수출액 : 1,101억불('13)
 - 상품수입액 : 967억불('13)

- 경제성장률 : 0.4%('13)
- 물가상승률 : 0.8%(평균,'13)
- 외환보유고 : 853억불('13년말 기준)
- 실업률 : 6%('13)
- 재정수지 : 2.5% 적자(GDP 대비)

덴마크 경제

◎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 추이

-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후 성장 정체가 지속되어, GDP가 금융위기 이전 최고수준대비 여전히 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생산성 저하, 약한 국내수요, 임금 경쟁력 약화 및 수출저조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집권정부는 “2013 Growth Plan”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중에 있음.

※ Growth Plan DK : 생산성 · 민간 일자리창출 증대에 초점을 둔 202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 제시(2020까지 400억DKK 증대, 2014 ~ 2020년 사이 연간 0.3% 성장해야 달성 가능)

- 민간부문은 고용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은 고용이 감소하였고, 청년층들이 구직보다는 학업지속을 선호함에 따라 전체 노동력이 감소
- 노동시장 구조개혁(2013~2017년간 최대 실업보험기간 2년으로 축소 등)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향후 고용증대 예상
- 정부재정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하나, 대규모 가계 부채(OECD 최대) 지속이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음.

- 자동 안정화 장치 작동 수준도 정부 재정 수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가계 자산 수준은 높으나, 연금 수급권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채는 주로 주택담보 용자로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여 소비 수요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은행부문(총자산: GDP의 4배, 3대은행이 총자산의 78%차지)의 수익성과 자산품질은 여타 노르딕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택버블, 작은 대출규모 및 높은 재원조달비용, 높은 부실채권 (NPL) 보유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 주요 경제지표

-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회복세가 견지되고, 금년도 GDP 성장률 1.5%, 내년도는 2% 성장 전망 (2014. 8월 덴마크 경제부 발표)
- 반면, EU는 덴마크 경제가 2014년 0.8%, 2015년 1.7%, 2016년 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정부재정적자는 GDP의 0.9%이었는데, 2014년은 1.4%, 2015년은 3% 예상
- 지난해 약 2만명 고용증가, 금년중 2.1만개, 내년에 2.2만개 정도 신규 고용창출 전망.



오스트리아 개관

- ❖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
- ❖ 수도 : 빈(Vienna, 약 173만명)
- ❖ 인구 : 약 822만명
- ❖ 면적 : 83,871km²(한반도의 약 2/5)
- ❖ 언어 : 독일어
- ❖ 민족 : 게르만계(85.8%), 소수민족(2.9%), 상주외국인(11.3%)
 - * 상주외국인 : 구 유고슬라비아인(40%), 독일인(15%), 터키인(13%), 기타(32%)
- ❖ 종교 : 가톨릭(72%), 개신교(6.1%), 이슬람교(4.9%), 무종교(12.2%), 기타(4.8%)
- ❖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9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형태 : 양원제 (하원 183석, 상원 61석) * 각 임기는 5년
 - 대외정책 : 영세중립
- ❖ 경제현황
 - GDP(명목) : 4,361억불('2014 IMF 기준)
 - 1인당 GDP : 51,183불('2014 IMF 기준)
 - 교역규모 : 2,554억 유로 (수출 1,254억 유로, 수입 1,300억 유로)
 - 산업구조 : 서비스업(68.7%), 제조업(19.3%), 건설업(6.8%), 농업(1.5%)
 - 경제성장률 → 0.4%, 물가상승률 → 2.0%, 실업률 → 4.9%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892.6.23 (조·오 우호통상조약 체결)
 - ※ 1963.5.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 교역현황(2013, 우리기준)
 - 수출 : 6.07억불(반도체, 무선전화기, 승용차 등)
 - 수입 : 13.82억불(반도체, 자동차부품, 재생섬유 등)

❖ 기후

- 연평균 기온 : 7~9C / 강수량 700~2,000mm
- 겨울(11월~2월) : 대체적으로 눈 많이 오며, 습기가 많아 춥고 체감 온도가 실제온도보다 낮아 두터운 겨울 복장 착용 필수적
- 봄(3월~4월) :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로 두터운 겉옷 필요

오스트리아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EU 가입 후 구동유럽 공산권국가의 체제전환 후, 중동부 유럽 국가 투자의 효과로 2003년 이래 2007년까지 경기가 활성화되며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였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누적된 내수부진, 유로화강세, 국제유가상승, 세계경제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급속하강 하면서, 2009년에는 마이너스 실질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13년 0.3%의 소폭 성장에 그친 오스트리아 경제가 2014년에는 다소 회복한 0.8%, 2015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2%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오스트리아 양대 경제연구소 중의 하나인 Wifo가 발행하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인 ‘월간경제동향(Monatsberichte)’ 최신호에 따르면 2014년 오스트리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3년(0.3%)보다 높은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회복세가 이어지는 2015년에는 1.2%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아직 유동적인 세계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정부 재정적자 규모감소를 통한 국가부채 감소 노력 등의 국내적 요인 등이 맞물려 2014, 2015년 모두 성장률 증가폭은 연초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4년 하반기 들어 세계 교역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이 같은 추세가 2015년에도 이어질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인 오스트리아의 경제성장률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개관

- ❖ 국 명 : 헝가리(Hungary)
 - 헝가리어로는 Magyarország(머저르오르삭)으로 표기
 - ※ 2011.4월 헌법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국명에서 공화국(Republic)을 삭제, 헝가리(Hungary)로만 사용
- ❖ 면 적 : 93,031km² (한반도 223,170km²의 42%)
 - 동·서간 : 528km, 남북간 : 268km
 - 국경 : 2,171km(7개국과 접경 :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 인 구 : 9,919,128명 (2014. 07 est. CIA 기준) * 인구증가율 : -0.3%
- ❖ 기 후
 - 연평균 기온 : 10.5℃, 연평균 강수량 500~900mm
 - 겨울 : 평균 -2℃~12℃, 여름 : 평균 23℃~25℃
- ❖ 표준시 : GMT + 1시간(한국시간 - 8시간)
 - 썸머타임 시행기간(3월~10월 마지막 일요일 기준) : -7시간
- ❖ 지 형
 - 두너 강(전장 2,850km, 불가 강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 긴 강, 헝가리 내 전장 417km)을 사이에 두고 국토양분
 -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벨러톤(Balaton) 호수(동서간 77km, 남북간 1.3km~14km, 중유럽의 바다로 불리움)는 헝가리 최고의 관광 휴양지

- 헝가리 국토의 70%가 온천 개발 가능 지역으로, 현재 전국에는 500여 개의 온천이 있고, 수온이 30℃ 이상이어서 근육신경계 질환치료 효과로 유명 (지하에는 4,000km³의 온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10%만 사용)
- 전 국토의 3/4이 저평원 지대, 1/5은 400m 이하의 구릉지대, 5% 정도가 400~1,000m 정도의 산악지대
- ❖ 언 어 : 마자르어(헝가리어)
- ❖ 민 족 : 헝가리인(Magyar, 94.5%), 집시(1.9%), 독일인(0.6%)
- ❖ 종 교 : 로마 카톨릭(54.5%), 개신교(19.5%), 기타(26%)
- ❖ 정치체제 : 의원 내각제(단원제)
- ❖ UN 가입 : 1955.12.14.(91~93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 주요 국제기구 가입 : IMF(82.5), OECD(96.3), NATO(99.3), EU(2004.5)
- ❖ 주요 경제지표(2013년, EIU, 헝가리 통계청)
 - 명목 GDP : 1,297억불('2014 IMF 기준)
 - 1인당 GDP(구매력 기준) : 13,154불('2014 IMF 기준)
 - 경제성장률 → 1.1%, 물가상승률 → 1.7%, 평균실업률 → 9.1%
 - 화폐단위 : Forint (1불 = 269포린트, 2015. 2월 환율)
 - 무역 : 수출 : 1,088억불, 수입 : 991억불
 - 산업 구성(GDP 점유율) : 농업(2.4%), 제조업(37%), 서비스업(60.5%)

헝가리 경제

- 헝가리는 1960년대말 ‘신경제정책 시행’ 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였음. 1980년대말 이후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 과도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난을 겪었음.

- 이 시기 경제난의 원인은 경제개혁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과 국제 통화기금 경제 안정화 계획에 부응한 긴축정책의 영향이 컸음. 이로 인해 헝가리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했으며 에너지 부족과 가격 자유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음.
- 또한 구(舊) 코메콘(COMECON,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 해체에 따른 수출시장의 상실 및 과도한 외채 부담 등의 경제적 장애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1990년~1993년간 헝가리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헝가리는 1990년 이래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정책과 대외무역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1995년 3월에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1994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헝가리 경제는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연간 4% ~ 5%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구(舊) 동부유럽 사회주의국가 중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음.
- 1997년 이후 4% 이상의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달성하여 2000년 5.2%, 2001년에는 3.8%, 2002년에는 3.5%, 2003년에는 2.9%, 2004년에는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2011년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IMF 및 EU 구제금융 협상난향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헝가리 중앙은행(MNB)에 따르면, 2015년 경제성장률 2.4%로 예상함.



Agenda

- Facts about LEGOLAND
- History and development of product
- Market position
- Marketing of the destination LEGOLAND Billund Resort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LEGOLAND concept

LEGOLAND is a world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uilt of 60 million LEGO bricks. LEGOLAND offers shared experiences for the whole family - with the child at the center. A theme park based on the values of the world's strongest brand and the world's best toy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3 things that set us apart



The LEGO brick with its promise of play, learning and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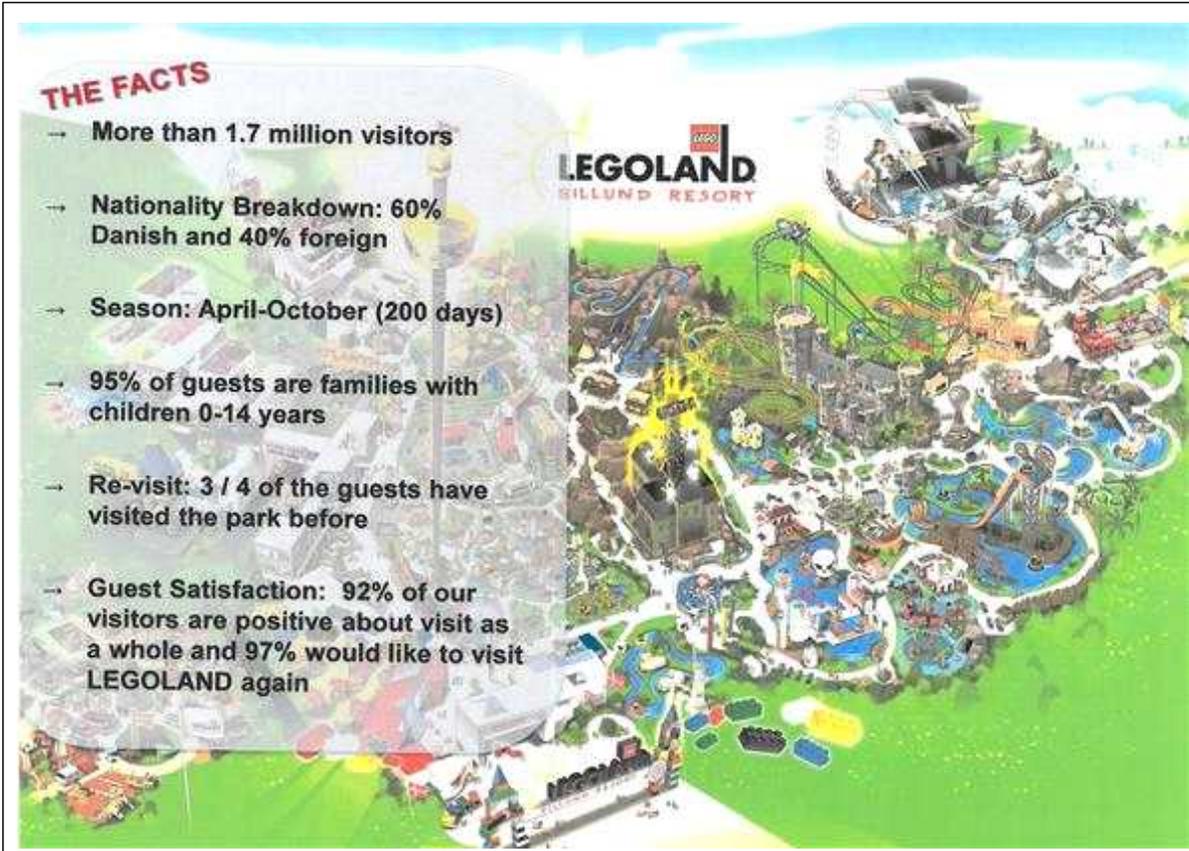
Highly committed and trained staff that consistently delivers close to 100% guest satisfaction



Interactivity – 'you make it come alive'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THE FACTS

- More than 1.7 million visitors
- Nationality Breakdown: 60% Danish and 40% foreign
- Season: April-October (200 days)
- 95% of guests are families with children 0-14 years
- Re-visit: 3 / 4 of the guests have visited the park before
- Guest Satisfaction: 92% of our visitors are positive about visit as a whole and 97% would like to visit LEGOLAND again

LEGOLAND
BILLUND RESORT



History LEGOLAND Billund

- Founder - then owner of the LEGO Group - Godtfred Kirk Christiansen
- Conceived as a showcase for the LEGO product
- Opened 7th June 1968 with 38,000 sqm - currently 150,000 sqm
- 625,000 visitors the first year.
- 50 million children and adults have visited LEGOLAND Billund since opening
- LEGOLAND Billund Resort established in 2009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View of Park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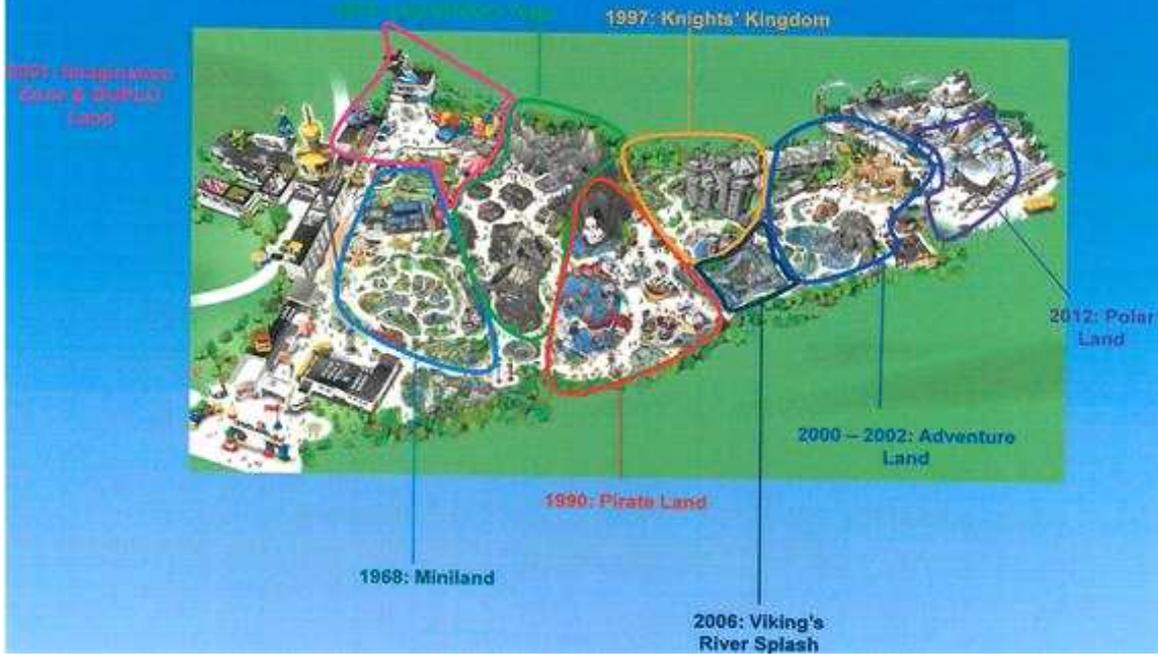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View of Park 2011



Park development



Accommodation



Hotel LEGOLAND
223 family rooms / 950 beds
Premium price and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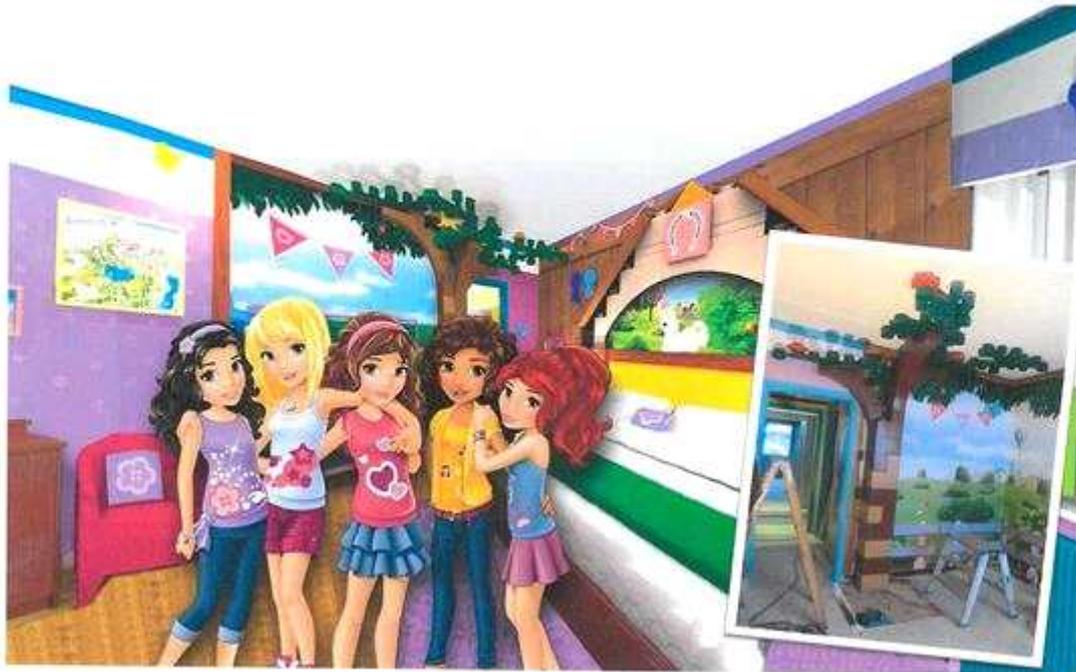
LEGOLAND Holiday Village
60 cottages, 44 rooms,
600 camp pitches / 2200 beds
Affordable price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Themed rooms attract more demand



International position as Denmark's most known attraction

Uhjulpet kendskab til Danmark, illustreret ved wordclouds



Sp.: Hvilke attraktioner, seværdigheder eller steder i Danmark kender du eller har du hørt om? Med attraktioner og seværdigheder menes fx forlystelsesparker, museer, historiske monumenter, naturfænomener, steder og byer af særlig interesse. *Noteer alle, du kan komme i tanke om her:* _____

How to ...



from ...

1-2 days
(‘day visit’)



to...

3-5 days
(‘Short break’)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What is LEGOLAND Billund Resort?

Strategic co-operation on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between LEGOLAND, Lalandia, Givskud Zoo and 7 municipalities.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What makes a successful destination?



A destination is somewhere worth leaving home for ...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2009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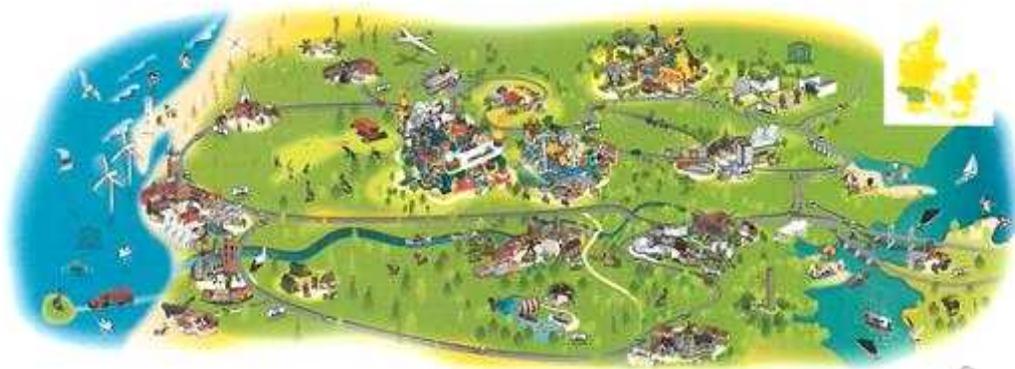
2012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2015 – coast to coast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Who ARE involved in LEGOLAND Billund resort?

Stena Line

Color Line

TUI

Matka Vetka

Neckerman

Jazz Tours

LLBR destination partners

FOMARS

Region
Syddanmarks
Vækstforum

Visit Denmark

LLBR destination partners

Billund kommune

Veje kommune

Kolding kommune

Vejen kommune

LLBR product partners

LEGOLAND park +
Hotel LEGOLAND +
Holiday Village

Lalandia

Givskud Zoo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Lalandia



- Holiday houses
 - 500 in 2009
 - 761 in 2010
 - 810 in 2011
 - 850 in 2012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Attractions: Today and potential future



LEGOLAND IS PART OF THE MERLIN ENTERTAINMENTS GROUP

